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Our Neighbors

선조가 지킨 나라, 그 품으로 돌아오다
독립유공자 최현구 애국지사 현손녀(玄孫女) 김영

KIS 24H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하루

ON AIR KIS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우리의 뿌리를 되새기는 가을을 맞이하며

저마다의 고향과 뿌리를 떠올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번 가을호에서는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 온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구한말 조선의 국권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푸른 눈의 한국인’ 호머 헐버트 이야기가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반세기 전 낯선 땅 독일로 떠났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돌아와 삶의 터전을 일군 남해 독일마을의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소개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가을의 결실과 같은
뜻깊은 성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외 우수인재 유치,
소상공인 민생경제 지원, 관광 활성화, 이민자 권익보호 강화
등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권침해 신고부터 현장 조사, 권리구제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는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인권침해 피해자가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345
콜센터 1번’ 전용 창구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처럼 서로의 삶이 더욱 넉넉하게 어우러지는 사회,
다양한 뿌리를 가진 모든 이가 함께 뿌듯한 오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 용 호

As We Welcome Autumn, a Season to Reflect on Our Roots

Autumn is the season that reminds each of us of our hometowns and roots.
In this fall issue, we feature the stories of those who have forged deep ties with Korea and built their lives here, as well as the spirit of “Gongzone” that our society is building together.

As we mark the 81st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Day and honor the noble sacrifices of our forebears, the stories of the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who have been granted Korean nationality, and of Homer Hulbert—the “Korean with blue eyes” who risked his life to defend Korea’s sovereignty during the late Joseon and Korean Empire periods—invite us to revisit our roots. We also showcase the beautiful scenery of Namhae German Village, where Korean miners and nurses who left for the unfamiliar shores of Germany half a century ago returned home and build new lives.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is also continuing to achieve meaningful results, much like the bountiful harvest of autumn. Marking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People’s Sovereignty Government”, we announced achievements in immigration policy innovation—such as attracting top global talent, supporting the livelihoods of small business owners, revitalizing tourism,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immigrants’ rights—that deliver tangible benefits to the public and local communities.

Furthermore,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is laying a prac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nationals’ human rights. As part of these efforts, it has launched the “Investigation Team for Migrant Human Rights Violations”—which incorporates reporting, on-site investigations, and remedies into a single system— and introduced a dedicated reporting channel at the 1345 Call Center that enables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o receive immediate assistance in 20 languages by calling 1345 and pressing 1.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continue working toward a society as bountiful as autumn, where our lives are enriched through harmony with one another, and toward the Republic of Korea where everyone, whatever their roots are, can take pride in what they build together today. Thank you.

Yongho, Cha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CONTENTS



06



18



28

통권 77호(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6년 10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락처 02-2110-4019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편집·디자인 (주)위닷(02-6205-9246)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TORY Zone

KIS Zone

SHARE Zone

- 04

K-Style
사람이 온다는 것
- 06

Our Neighbors
선조가 지킨 나라, 그 품으로 돌아오다
독립유공자 최현구 애국지사 현손녀(玄孫女) 김영
- 10

Me&You, Ours
재한 외국인 & 직원들 미담사례
- 12

Hi-Story
호머 헐버트,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이름
- 14

Diaspora
파독의 기억이 마을호텔로 꽃피다
남해 독일마을
- 18

KIS 24H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하루
- 22

Zoom In KIS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출입국 풍경
- 26

Briefly KIS
- 1345 누르고 1번, 외국인 인권침해
여기로 신고하세요
- 중국·베트남 등 6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
- 28

ON AIR KIS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32

Catch-Up KOREA
일상 속 역동성과 도파민 채우는 ‘디저트’
- 34

KIS News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 소식
- 36

출입국외국인정책 Q&A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나도 한 번 받아볼까?
- 38

For Readers
<공존> 독자들을 위한 이벤트

사람이 온다는 것

WHEN SOMEONE COMES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죠.

어디선가 오고 또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차역의 인파, 공항의 배웅 속에는
사람들의 삶과 그리움이 길을 따라 이동합니다.

가을의 바람은 이런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 바람을 흉내 낸다면,
마침내 ‘환대’가 될 것입니다.

_정현종의 시(詩) 「방문객」에서 인용



선조가 지킨 나라, 그 품으로 돌아오다

독립유공자 최현구 애국지사 현손녀(玄孫女) 김영



Returning to Korea

1919년 울산 병영 3·1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르고,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중국에서 생을 마친 독립유공자 최현구 지사.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2026년 8월, 그의 현손녀(玄孫女) 김영 씨가 딸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아 들었다. 중국에서 나고 자라 2018년 한국 유학길에 올랐던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자로 활동하며, 선조가 지키고자 했던 나라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2018년 당시 15개월이던 아이, 남편과 함께 한국에 온 뒤 서울대 학교에서 아동가족학을 전공해 2024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주배경 아동과 가족의 적응,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지금은 연구원으로 일하며 대학 강의와 부모교육 등 현장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현구 애국지사
(1898.5.8~1941.1.24)



경남 울산군 하상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최현구 지사는 1919년 4월 울산군 일신학교 등지에서 약 200명의 시위대와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최현구 지사는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받았고, 형이 확정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최현구 지사(오른쪽)와 친형인 한글학자 외설 최현배 선생(가운데).
외설 최현배 선생의 며느리 이해자씨 제공

최현구 애국지사의 현손녀시라고 들었어요.

최현구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신 것은 2007년, 저희 가족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의미를 깊이 실감하지는 못했어요. 어릴 때는 집안에 한글학자로 알려진 먼 선조가 있다는 정도만 들었는데, 그분이 외설 최현배 선생이고 제 고조할아버지인 최현구 지사의 친형입니다.

선조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오히려 한국에 온 이후, 특히 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후손 특별귀화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던 때였죠. 작은할아버지 역시 외설기념관을 찾았다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직접 귀화를 신청하셨다고 하니, 저희처럼 해외에 사는 후손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제대로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족의 흠어진
기억을 하나씩 알아가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의 무게감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국지사의 후손임을 처음 실감한 순간이 있다면?

2017년 한국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며 작은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훈장증서와 선조의 옛 사진을 장학금 신청 서류로 제출했고, 재외동포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선조께서 제 삶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연으로 다가오신 순간이었죠.

2026년 4월에는 딸과 함께 직접 울산에 왔습니다. 고조 할아버지의 위패를 모신 삼일사에서 묵념하고, 외솔기념관에서 최현구·최현배 두 형제의 역사와 기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가 터도 둘러보았습니다. 그 공간들을 직접 걸어보니 자료와 이야기로만 접했던 가족의 역사가 훨씬 가깝게 다가왔고, 마음도 많이 뭉클했습니다.

최현구 애국지사는 1919년 울산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르셨다고요. 집안에 전해오는 일화가 있을지요. 할아버지는 평소 일본 군경의 감시를 피해 술자리를 핑계로 독립운동을 논의하셨다고 해요. 서울의 3·1운동 소식을 들은 뒤 울산에서도 만세운동을 준비했고, 1919년 4월 4일 병영 장날 축구공을 하늘로 차 올리는 것을 신호로 만세운동이 시작됐다고 전해집니다. 할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감시가 이어지자 몸이 아픈 큰딸을 형인 최현배 선생에게 맡긴 채, 다른 가족들과 중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현잔’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는데, 손주가 본명을 물어도 할머니조차 모른다고 하셨을 만큼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해요.

아직 유해를 찾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묘소가 있는 지역과 산은 알지만,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던 윗세대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단서가 하나 생겼는데, 같은 지역에 사셨던 할아버지 누님의 후손 중 한 분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 현재 그 친척분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묘소가 확인되면 유해를 대전 현충원으로 모셔오는 것이 가족의 바람입니다.

국적증서를 받아든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이게 나 개인만의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린 시절 저를 키워주신 친할머니가 많이 떠올라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최현구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2007년, 할머니는 한국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듬해 건강이 악화돼 중국으로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소 위치를 가장 정확히 아셨던 분이 할머니였는데 끝내 연결되지 못했다는 게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사진(김영)

어릴 적 부모님이 민족학교에 보내며 “우리말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그 시절 민족학교는 어떤 곳이었나요?

제가 다닌 조선족 학교에서는 한어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을 우리말로 배웠고, 저에게 우리말로 공부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말을 알아야 민족의 전통과 예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갔고, 설에는 한복을 입고 찰떡을 먹었으며, 민족무용을 배우고 전통놀이인 그네뛰기로 운동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전통교육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민족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야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었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와 문화를 이해하고 제 뿌리를 알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앞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이어가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요?

선조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 그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동포 후손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출신 국가나 민족적 배경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 안의 다양한 삶과 역사를 봐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가족학 연구자로서 재외동포나 이주배경 가족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어요. 📖

김영이 한국에서 이어가고 싶은 것들



가족의 기억

최현구 지사 유해 발굴·봉환
울산 삼일사, 외솔기념관, 생가터를
돌아보았고, 앞으로도 최현구 지사의
흔적을 따라 뿌리를 잇고자 해요.



딸과 함께

양궁 선수 예은이의 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국적이 아닌 실력으로 다음 목표를
세워가길!



연구자로서

이주배경 아동·가족 정착 지원
부모교육과 공동체 활동으로 현장의
가족들을 만나며 이주배경 가족들의
삶을 보듬고 싶어요.



바람

서로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사회
출신이나 국적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봐주었으면 합니다.

나와 너를 이어주는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희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분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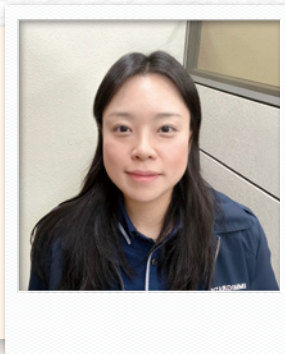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업무를 처리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도움을 받아 이렇게 마음을 전합니다. 당시 아픈 외국인 며느리가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등록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는데, 노란 조끼를 입으신 남자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급한 민원임에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창구 여직원분께서는 제가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시고 먼저 사정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며느리가 당일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모두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모습에서 큰 감동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8월 28일 from. 김○영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기림 주무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이렇게 칭찬글을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바쁜 상황에서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칭찬을 계기로 작은 부분이라도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친절하고 세심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도니(자원봉사자)

부족한 제게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고 급한 상황에서 등록 절차를 낫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도와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며느님이 무사히 병원에 입원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봉사자로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만나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심껏 돕겠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

따뜻한 이야기

이번 F-2-R 체류자격 변경 신청 중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접수를 도와주신 황현선 직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며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심사를 담당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학생 비자로 다시 시작하여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6년 8월 19일 from. Khin○Lwin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현선 주무관

원하시는 결과를 전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저희의 작은 응대가 힘이 되었다는 말씀에 오히려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출입국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감사와 응원을 오래 기억하며, 저도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 신뢰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출입국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한 외국인 이야기

국경을 넘어 우리 동네를 지키는 밤 '원곡동 자율방범대' 이야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은 100여 개국 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특구다. 이 골목의 밤을 지키는 이들 중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가나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대원도 있다. 약 40년 전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안산시 최초의 자율방범대, '원곡동 자율방범대'.

원곡동이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변하면서 기존 방범 활동만으로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기 어려웠다. 이에 방범대는 2010년부터 꾸준히 필요성을 제안한 끝에 '외국인 가입 허용'을 담은 정관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금은 여러 나라 출신 대원들이 내국인 대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순찰에 나서고 있다.

대원들은 생업을 마친 고단한 몸으로 매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원곡동 골목을 도보와 차량으로 순찰한다. 원곡다문화파출소와 협력해 쓰레기 무단투기나 소란 같은 문제를 계도할 때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 대원이 자국어로 직접 설명해 마찰을 줄인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원곡동에 사는 100여 개국 주민 모두가 한 번쯤 방범대 활동에 참여해 "내가 사는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다. ㉮

2026년 6월 30일 from. 안산시 자율방범대 원곡지대(최용석 지대장)



목숨을 건 국권 수호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이름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



호머 헐버트©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886년 7월, 스물세 살의 미국 청년이
제물포항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가 아는
조선이라곤 지리 교과서에서 본 ‘코리아’라는
이름 석 자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 낯선
땅에서의 시간은 5년의 교사 생활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한글을 배우고 고종의 밀사가
되고 마침내 이 땅에 뿌를 물었다. 훗날
안중근 의사는 뒤편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이려면 헐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이방인,
호머 헐버트의 이야기다.

낯선 땅에서 스승이 되다

1886년, 고종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 ‘육영공원’은
미국에 영어 교사 파견을 요청했다. 당시 자원해 조선 땅을
밟은 청년이 호머 헐버트였다. 헐버트는 조선에 오자마자
열정적으로 한글을 공부했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
신이 먼저 한글을 터득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급기야
한글 공부 3년 만에 한글 교과서를 저술할 정도의 수준에
오른다.

한글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다

헐버트는 1889년 순한글로 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지리
교과서를 펴냈다. 한자만이 지식의 언어로 여겨지던 시절,
‘선비와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에서
책 이름도 「사민필지」라 지었다. 그는 “한글은 세계 어느 문
자보다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라 극찬하며 1903년 국제
학술지에 한글의 우수성을 처음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배
재학당 제자 주시경과 함께 우리말 문법을 다듬었고, 독립
신문 창간에 힘을 보태며 한글의 띄어쓰기와 구두점 사용
을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호머 헐버트가 집필한 최초의 한글 인문지리 교과서 사민필지©국립한글
박물관

고종의 밀사, 국권 수호에 나서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
하자 고종은 외국인 헐버트에게 비밀리 특명을 내렸다. 온갖 위
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임무를 맡게 된 헐버트는 대한제국을 도
와 달라는 친서를 들고 미국으로 향한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이 만남을 거부, 결국 친서는 전달되지 못했다. 그러나 헐버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뉴욕타임스, 뉴욕헤럴드 등 언론을 통해 일
본의 불법성을 세계에 알렸다.

헤이그로 향한 또 한 명의 특사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를 앞두고, 고종은 이상설·이준·이
위종 세 특사와 함께 헐버트에게도 비밀 임무를 맡겼다. 헐버트
는 특사들의 무사 도착을 돕기 위해 일제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첩보활동을 펼친다. 러시아, 유럽을 거쳐 헤이그에 도착한 헐버
트는 평화클럽(Peace Club) 연설을 통해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직접 알렸고, 후일 한국 독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



헤이그 특사인 이준, 이상설, 이위종. 헐버트 박사는 이들을 네덜란드 헤이그로
파견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1945년 해방까지 이어진 독립운동

결국 일제에 의해 한국에서 추방당한 헐버트는 본국으로 돌아가
서도 강연, 기고, 집회 등으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38년의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을 통해 일본의 불법
성을 폭로하고, 미국 전역을 돌며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등 한국
인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다. 3·1운동 직후인 1919년 8월 ‘한국을
어찌할 것인가(What about Korea?)’라는 ‘한국 독립 호소문’을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일본의 잔학상을 고발하
기도 했다.



2013년 문경새재에 건립된 헐버트 아리랑비©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가 다시 한반도 땅을 밟은 건 1949년,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받고서였다. 인천항에 도착하기 전 그는 이런 말을 남긴다. “나
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 외국인 최초의 사회
장으로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됐다. 대한민국은 헐
버트에게 건국훈장 태극장(1950년, 현 독립장), 금관문화훈장
(2014년)을 수여해 그의 마음을 기렸다. ‘아리랑’을 처음으로 서
양식 음계로 채보해 세계에 알렸던 공은 ‘제1회 서울아리랑상
(2015년)’으로 보답했다. 🇰🇷



호머 헐버트의 묘, 서울외국인묘지공원©라원크82

[참고자료]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김동진(사단법인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회장) 기고
- 우리역사넷 「헐버트, 대한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

남해대교를 건너 삼동면 물건리 언덕길을 오르는 순간 이곳의 풍경이 펼쳐진다.
주황빛 기와지붕과 새하얀 벽의 집들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웅기종기 마을을 이룬다.
간판 대신 걸린 독일어 문패, 길 끝에서 풍겨오는 맥주와 소시지 냄새. 이 이국적인 풍경은
이역만리에서 조국을 위해 땀 흘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귀향 이야기를 품고 있다.

파독의 기억이 마을호텔로 꽃피다 남해 독일마을



독일마을광장 ©남해독일마을

이
주
가
만
든
풍
경



1960~70년대 파독군로자 ©남해독일마을

고국을 찾아온 사람들이 직접 지은 집

1963년부터 15년간 7,936명의 광부가, 1960년부터 17년간 1만 1,057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향했다. 지하 1,200m 막장에서 석탄을 캐던 청년들과 낯선 병원에서 문화의 벽을 넘어야 했던 간호사들. 그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1960~70년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1997년, 남해군이 독일 노드프리스란트군과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고국에 정착지를 마련해 달라는 교민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그렇게 2001년부터 물건리와 봉화리 일대에 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동포들은 독일 현지에서 건축 자재를 직접 들여와 집을 지었다. 거주 자격도 '독일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또는 독일계 동포'로 제한해 독일식 생활양식이 마을 안에 고스란히 이어지도록 했다. 지금도 40여 가구가 이곳에서 살아간다.

남해 독일마을 한눈에 보기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일대

특징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은퇴 후 정착한 유서 깊은 이주민 마을이자, 국내 최초 유럽형 수평 마을호텔이 자리한 곳

파독전시관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관) /
관람료 1,000원

도이처플라츠(독일광장)

독일식 식당, 공방, 맥주문화관 밀집

맥주축제

매년 10월 초 개최(2026년은 10.9~10.11)



마을의 시작



남해파독전시관 ©남해독일마을

그날의 김포공항과 그날의 탄광

마을 언덕 위 파독전시관에 들어서면 시간은 1970년대로 되돌아간다. 탑승교, 독일행 비행기 내부까지 이어지는 동선은 꿈을 안고 떠났던 청년들의 심정을 고스란히 전한다. 어둡고 좁은 지하 갱도, 광부들이 서로에게 건넸다는 인사 “글뤽 아우 프(살아서 돌아오라)”.

그 옆으로는 ‘코리아 엔헬’이라 불리며 독일 병원을 지킨 간호사들의 방이 이어진다. 낯선 언어와 문화, 향수를 편지 한 장에 눌러 담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다. 전시관 끝, ‘젊음의 종착역’에 다다르면 독일에서의 삶을 마치고 마침내 이 바다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둘 눈에 들어온다.(관람료 1,000원, 매주 화요일 휴관)

소시지 냄새를 따라 간다

독일마을 광장을 둘러싼 상점들에서는 독일 미식여행과 문화 체험을 누릴 수 있다. 그릴 위에서 지글대는 정통 소시지, 두툽한 독일식 족발 학센, 그리고 이 마을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프리미엄 생맥주 ‘란드비어’까지.

여행라운지에 들렀다면 독일 전통의상 디른들과 레더호젠을 입고 기념사진을 남겨보자. 짐 보관이나 휴대폰 충전 같은 여행자 편의도 챙길 수 있다. 만하임 펜션 앞, 베를린성 나뭇길, 전망대 등은 카메라를 꺼내 들기 좋은 명소들이다.



여행라운지 ©남해독일마을

3 독일마을광장

옥tober페스트가 남해에 뜨는 날

가을, 독일마을이 일 년 중 가장 뜨거워지는 순간이다.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를 한국식으로 재현한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전통의상을 입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걷는 환영 퍼레이드로 문을 열고, 대형 텐트 안 ‘옥토버 나이트 파티’와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로 절정을 이룬다. 정통 독일 맥주와 소시지, 학센을 곁들이며 잔을 부딪치다 문득 고개를 돌리면 초록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주황 지붕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여권 없이 떠나는 가장 가까운 유럽 여행인 셈이다.



맥주축제 ©남해독일마을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이 되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호텔과는 다르다. 호텔 개념을 ‘마을’이라는 수평적 공간으로 변형해 기존 마을의 자원들을 촘촘하게 이었다. 개별 민박집이 객실이 되고, 마을 식당은 조식 공간, 광장은 로비가 되는 국내 최초 유럽형 수평 마을호텔이다. 50여 객실, 28개 관광사업체가 손잡고 만든 이 모델은 커다란 건물 하나 없이도 마을 전체를 하나의 리조트처럼 누비게 해준다. 푸른 남해를 앞에 두고 즐기는 정갈한 독일식 조식은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다. ☺

[참고자료]

남해독일마을 공식 홈페이지(german-village.kr)



마을 전경 ©남해독일마을

5 독일마을호텔



2026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제14회)

기간

2026. 10. 9.(금) ~ 10. 11.(일)

장소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 일원

프로그램

환영 퍼레이드, 옥토버 나이트 파티,
정통 독일 맥주·소시지 시식회 등

24시간 내 '이민자 인권침해' 신고에 응답합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하루

권익보호관 김지연 팀장

인권침해조사관 장정우 계장

인권침해조사관 최용석 팀장

KIS 24h

지난 6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민자인권·권익팀'이 신설된 후 7월 31일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조사단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하 수원청)에는 권익보호관 1명과 인권침해조사관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자리를 잡았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24시간 안에 움직이는 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09:00

"이민자사랑방에서 첫 상담이 시작됩니다"

3층 이민자사랑방. 권익보호관 김지연 팀장의 하루는 피해자나 관계자의 신고를 직접 받는 일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방문이나 전화로 들어오는 신고는 접수되는 즉시 사건 검토에 들어간다. 사건 접수 대장과 상담 대장에 내용을 기재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지체 없이 본부 이민자인권·권익팀에 보고한다. 신고자 상당수가 한국어가 서툴고, 먼 거리를 이동해 직접 방문 신고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다 보니 '1345 콜센터'를 통한 신고가 가장 많다. 인권침해조사관인 최용석 팀장과 장정우 계장은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24시간 내 현장조사에 나선다.

10:00

"신고 창구가 해로 모이자 대응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는 창구가 통일돼 있지 않아 신고부터 구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인권침해 조사단이 생긴 뒤로는 "신고 창구가 일원화되고 구제 절차로 연계되는 과정도 체계적으로 바뀌어서 훨씬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최용석 팀장은 말한다. 수원청 관할 지역에서 인권침해 피해자는 계절근로자(E-8)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가장 많고, 유형으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흔하다. 작황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큰 농업의 특성도 안정적인 임금 지급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11:00

"오전에 점검 대상을 고르고, 오후엔 현장으로"

매일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답은 늘 현장에 있다. 인권침해 조사단은 사건이 없는 날에도 예방 차원에서 최소 주 2회 현장 점검을 다닌다. 현장에서는 자주 언어 장벽을 마주한다. 이때는 통역인이나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사업장에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이 있으면 그를 통해 대화를 풀어가기도 한다. 면담을 시작할 때는 '외국인을 단속하는 출입국 직원'이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출입국 직원'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고용주와 외국인을 분리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농장주(고용주)와 외국인을 철저히 분리한다. 최용석 팀장은 주로 고용주를, 장정우 계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한다. 면담에는 '인신매매식별지표*'를 활용하는데, 이 역시 외국인 본인을 위한 절차임을 먼저 안내한다.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가해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다. 면담이 피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가해자로 지목된 쪽도 세심히 배려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에 '인신매매식별지표'를 사용하는 이유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고립된 외국인 피해자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 이 식별지표는 어느 기관에서 면담을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피해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장벽들도 착착 해결"

간혹 자국의 글조차 읽지 못하거나 노안으로 문서를 읽기 어려운 외국인을 만나면 곤란할 때가 있다. 조사단이 스피커와 마이크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는 이유다. 고용주 쪽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한 번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식별지표'를 활용해 면담하겠다고 하니, 고용주가 '나를 지금 성범죄자로 보는 거냐며' 연성을 높인 적이 있어요. 저는 많이 당황했는데, 최용석 팀장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훌륭하게 상황을 정리하시더라고요."(장정우 계장)

저희의 중재로
당사자들 선에서
풀렸을 때
가장 보람 있습니다



"당사자들 선에서 풀렸을 때 가장 보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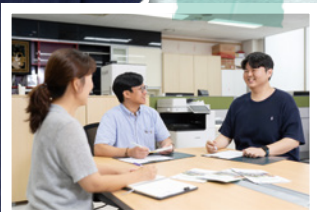
조사가 끝나면 사안별로 수사기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진정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체류자격 부여 등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건 등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상정되기도 한다.

"폭언과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고용주는 작업 중 의사소통과 문화 차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작업에 차질이 생기자 우발적으로 폭언한 것을 인정하고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했고, 외국인들도 상황을 이해한다며 민원을 취하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연계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저희가 잘 중재해서 당사자들 선에서 풀렸을 때 더 보람을 느낍니다."(장정우 계장)



"낮선 땅에서 애쓰는 이들 곁에 오늘도"

하루 업무를 정리하는 시간, 조사단의 책상 위에는 내일 방문할 농가 목록과 다음 상담 일정이 쌓인다. 신고 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24시간 안에 현장으로 달려가고, 관계기관과 손을 잡는 일. 그 촘촘한 절차 하나하나의 목적은 결국 하나, 낯선 땅에서 성실히 일하는 누군가의 오늘 하루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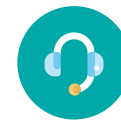


이민자 인권침해 신고, 복잡하지 않아요



❶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란?

지난 7월 31일 출범한 전국 통합 보호체계. 법무부 '이민자인권·권익팀'이 총괄하며,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조사,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까지 담당한다.



❷ 외국인 인권침해신고 전용창구란?

지난 5월 27일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설된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 20개 언어로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을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한 달 만에 신고 건수가 월평균 22건에서 142건으로 약 6.4배 늘었다.



Q.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장정우 계장 현장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좋아서 이곳에 자리 잡고 삶을 꾸려나가는 외국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제가 단속보다 외국인의 국내 생활 안정을 위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그런 분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합니다.

Q. 아직 신고를 망설이고 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지연 팀장 불이익을 받을까 봐 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고는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알려주시면 반드시 확인하고 돕겠습니다.



Q.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최용석 팀장 예전에는 출입국 관서마다 제각각이던 신고·조사 방식이 하나의 체계로 묶였습니다. 이제는 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의 조사관 100명이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훨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출입국 풍경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

지역에는 일할 사람이,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가, 이민자에게 안전하게 기댈 곳이 필요하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 세 가지 물음에 답하듯 비자와 체류 제도를 촘촘히 손봤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부터 동포 정착 지원, 이민자 인권보호까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그간의 변화를 정리했다.



한눈에 보는 출입국·이민정책 그간의 성과

(2026.8월 기준)



톱티어 비자

31명 체류 중
2030년까지 350명 목표



의료관광객

6,583명
(전년 대비 29%↑)



동포 체류자격 통합(H-2→F-4)

시행 5개월 만에 5만여 명이
재외동포(F-4) 자격 취득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173,088명 유치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이민자인권·권익팀 직제 신설
인권침해 신고 전용창구 마련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39만 명 → 34만 명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 32개교 지정

최우수 인재는 더 폭넓게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에게 발급하는 '톱티어 비자'는 올해 6월부터 기업 인력뿐 아니라 대학 교수·연구원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현재 31명이 이 비자로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2030년까지 35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공계 유학생을 위한 'K-STAR 비자트랙'은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서 27개 일반대학까지 범위를 넓혀(총 32개) 매년 100명 수준이던 이공계 우수인재 유치를 매년 5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은 더 든든하게

지역 중소기업의 손발이 되어줄 인력도 양성한다. 16개 전문대학에 자동차과 기계공학과 등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하고, 이곳을 졸업한 유학생이 취업비자(K-CORE)를 받아 지역 기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자동차·섬유·건설기계 등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에 이들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은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렸다. 지난 5월 신설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덕분이다. 이와 함께 농업 분야 핵심인력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2만 명 배정해 일손을 덜었다.



톱티어 비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목소리도 공장 정책에 반영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계·노동계·교육계가 낸 제안 22건을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심의해 14건을 채택했고, 이 중 건설기계부품제조원·도축원 직종 신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요건 완화 등 9건은 이미 정책에 반영됐다. 대학과 함께 꾸린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도 지난 4월 출범, 하반기 새로운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동포 우수인재에게는 국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국익 기여 가능성만 인정되면 우수인재로 특별귀화(국적회복)를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실제로 글로벌 500대 기업에 재직 중이던 호주 국적 동포가 이 제도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여행·의료관광 하러 오기 좋은 나라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문턱을 낮췄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25.9~'26.12.)해 올해 8월까지 총 17만 3,088명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는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26.5~'26.12.)한다.

소비력이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9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39개에서 90개로 늘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년 새 29% 증가했다.

이민자 권익 보호 '강화'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을 돕던 임시 조직이 올해 6월 공식 '이민자인권·권익팀'으로 신설됐다. 전국 청(사무소)에는 이민자 권익보호관 19명을 배치해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접수된 사건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상정하여 피해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였다. 에어건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과 서해상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2022년) 당시 조종사를 구조한 외국인에게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각각 부여되기도 했다. 이밖에 이민자가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인권침해신고 전용 창구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장의 요구 대폭 '반영'

동포 사회의 오랜 요구였던 동포 체류자격 통합(H-2, F-4▶F-4)이 올해 2월 이뤄져, 5개월 만에 5만여 명이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했고, 이들의 정착을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는 23개에서 37개로 확대 지정·운영 중이다.

인권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로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점검에서는 숙소·임금·인권침해 등 6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에 나섰다. 이 밖에도 난민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는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최대 5명의 학생을 선발, 지원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배달업·마약·대포차 등 국민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는 집중 단속했다. 특히 타인 명의 도용, 무면허·대포차 운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불법 라이더 734명과 관련 사업주를 적발해 조치하였다. 또한 불법체류·불법취업 외국인 상시 단속,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으로 '25. 1월 약 39만 명 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26. 7월 34만 명대까지 감축하였다.

10년 뒤를 내다보는 이민정책

저출생·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올해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새로 수립했다.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보호까지 아우르는 청사진이다.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통계를 바탕으로 더욱 세밀하게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가 올해 4월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받은 바 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포용사회 조성을 이끄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기회가 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할 예정이다. ㉮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출입국·이민정책의 발자취

2025 — 2026

- 2025. 06
국민주권정부 출범
- 2025. 09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 2026. 01
계절근로 법적 근거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
- 2026. 02
동포 체류자격 통합(H-2, F-4▶F-4) 시행
- 2026. 03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수립
- 2026. 04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출범
- 2026. 05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신설·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행
- 2026. 06
이민자인권·권익팀 정식 직제화·
토티어 비자 대상 확대(교수·연구원)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 설명회



1345 누르고, 1번 Dial 1345, then press 1

외국인 인권침해

이제 여기로 신고하세요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oreign Nationals
Report Them Here Now



특히 이런 분들에게 필요해요

This service is especially helpful for:

- ✓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자(E-8), 예술행행(E-6), 외국인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신고자 비밀 보장
- ✓ Employment Permit System (E-9) holders, seasonal workers (E-8), Arts&Entertainment (E-6), foreign seafarers (E-10), marriage immigrants, etc.
※ Confidentiality guaranteed for reporters

신고하면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Here's how we support you after filing a report

- ① 익명 신고·전담 상담원 배정
- ② 유형별 전문 기관 연계
(이민자 권익보호관·원스톱솔루션센터·마을변호사·지방노동청·권익보호기관)
- ① Guaranteed anonymity · Assignment of a dedicated counselor
- ② Referral to appropriate specialized organizations based on the type of issues
(Migrant Rights Protection Officers · One-Stop Solution Center · Village Lawyers for Foreigners Program · district employment and labor offices · other rights protection organizations)

임금체불, 폭행, 여권 압수, 강제노동...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랐다면?

Unpaid wages, physical abuse, passport
confiscation, forced labor...
Not sure where to report these issues?

-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후 1번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와 즉시 연결
- ✓ After calling the 1345 Immigration Contact Center for Foreign nationals, press 1 to be immediately connected to a dedicated multilingual counselor

20개 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Counseling is available in 20 languages

- ✓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몽골어·프랑스어·스페인어·인도네시아어·러시아어·독일어·네팔어 등
- ✓ Korean, English, Chinese, Vietnamese, Thai, Mongolian, French, Spanish, Indonesian, Russian, German, Nepali, etc.



지역번호 없이 1345

Dial 1345 (no area code required)

평일 09:00~22:00 운영
(18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가능)

Operating hours: Weekdays 9:00 AM~10:00 PM
(After 6:00 PM, only Korean, English, and Chinese are available)



전화가 어렵다면?

Having trouble making a call?

- 페이스북 'Migrant Rights' 검색
- QR코드 스캔 후 메시지 전송
- Search for "Migrant Rights" on Facebook
- Scan the QR code and send a message



중국·베트남 등 6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2026년 말까지' 연장

Group Tourist Visa for
6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Vietnam
Fee Waiver Extended
"Through the End of
2026"



어느 나라가 해당하나요?

Which countries are eligible?

- ✓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3인 이상 일반 단체관광객)
- ✓ 인도·캄보디아(5인 이상 기업 인센티브 관광객, 대학교 이하 수학여행단)
- ✓ China, Vietnam,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general group tourists of 3 or more people)
- ✓ India and Cambodia (corporate incentive tourists of 5 or more people, and school trip groups at the University level or below)

2025년 단체관광 가장 많이 온 나라는?

Which country sent the group tourists in 2025?

중국 China	614,040명
베트남 Vietnam	74,333명
필리핀 Philippines	53,580명
인도네시아 Indonesia	40,062명
캄보디아 Cambodia	7,370명
인도 India	1,120명

\$15 비자 수수료, 연말까지 무료

\$15 Visa Fee Waived Through the End
of the Year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가 올해 말까지 연장됐어요.
1인당 15달러의 비자발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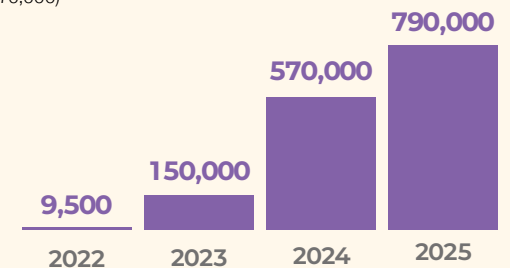
The waiver of visa issuance fees for group tourists from six countries
has been extended through the end of this year. This allows travelers
to save the \$15 visa issuance fee per person.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연장 효과는?

What are the effects of extending the
visa fee waiver?

2025년 단체비자로 79만 명이 한국을 방문, 전년(57만 명) 대비 약
39% 증가

In 2025, 790,000 people visited South Korea on group tourist visas,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39%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570,000)



방한 부담은 낮추고, 지역경제는 살리고

Reducing the Burden of Visiting Korea While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recovery of local economies.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선열이 지킨 대한민국, 후손의 삶으로 이어지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매한 윤봉길의사 기념관.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열다섯 분의 이름과 그 뜻을 이어받은 스물세 명의 얼굴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쿠바 등 저마다 다른 국적으로 흩어져 살아온 후손들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선조가 그토록 되찾고자 했던 이 땅의 국민이 되는 순간이었다. 법무부는 2004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왔으며, 이번 수여로 그 수는 누적 1,448명이 되었다.



[기념사와 축사] 선열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묵념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법무부장관의 기념사에는 이번 수여식이 뜻깊은 이유가 담겼다. “독립운동과 윤봉길 의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이곳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맞이하게 되어 그 의미가 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흥무관학교 교관 김경천 선생, 임시정부 통합에 힘쓴 신숙 선생을 비롯한 열다섯 분 선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경의를 표한 뒤, “국적증서는 선조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영상도 몽글함을 더했다.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문화를 누려오셨든,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채워갈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축사를 맡은 김용만 국회의원(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의 이야기는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늘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의 선조 중 여러 분이 실제로 백범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동지였다고 전했다. “최재형 선생님은 초대 재무총장을, 백범은 초대 경무총장을 맡으셨고, 신숙 선생님은 임시정부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함께 자리를 지켜주셨다.” 그는 특히 쿠바에서 위험한 애니깽(선인장) 농사를 지어가며 독립자금을 보냈던 임천택 선생의 후손을 향해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쿠바까지 찾아가 그 인연을 이어왔다”며 깊은 소회를 밝혔다.



2026년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일시·장소
2026. 8. 13.(목) 14:00, 매한 윤봉길의사 기념관(서초)
- 수여자 법무부장관
- 수여대상자
독립유공자 15명(김경천 선생 등)의 후손 23명(국적별 : 중국 12, 러시아 5, 카자흐스탄 3, 우즈베키스탄 2, 쿠바 1)
- 참석
김용만 국회의원(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후손 가족 및 지인 등 약 130명

독립유공자 15명을 소개합니다(후손 23명)

김경천 | 신흥무관학교 교관, 수청지역 의용군 총사령관 '김장군'

신 숙 | 3·1운동 독립선언서 인쇄·배포, 임시정부 통합·한국독립군 참모장

전 일 | 대한국민의회 서기, 비밀결사 소년단 단장, 항일언론 활동

최병수 | 아산 선장 장날 만세운동 주도, 순국

최이봉 | 철혈광복단 결사대 조직, 적기단장으로 무장활동 주도

최재형 | 연해주 항일 지도자,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 순국

이여송 | 조선혁명군 제1사 부관, 집안현 전투 전사

임천택 | 쿠바 이주,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방회 중심 독립운동-민족교육

조근백 | 산남의진 참여, 항일투쟁 중 순국

권상익 | 대중교 입교, 북한도 항일 포교·민족운동 지원

남인상 | 창동학교 설립·민족교육, 3·13 만세운동 주도

신홍균 | 원종교·대진단 항일활동, 대전자령 전투 군의 활약

최현구 | 울산 일신학교 만세운동 참여, 옥고

구철성 | 북로군정서 가입, 대한의용군 항일전 참여

장영석 | 칠곡 석적면 만세운동 주도, 옥고



[유공자 영상 소개와 국적증서 수여] 끝내 빼앗긴 빛을 되찾다

이어 열다섯 유공자와 스물세 후손의 삶을 담은 공적 영상이 상영됐다.

“낮선 땅에서 총을 들고 우리 말을 가르치며, 그들은 끝내 빼앗긴 빛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장내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이어 “만주를 호령한 김장군,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자 수청 의용군 총사령관 김경천 선생 후손 무사예프 안사르님입니다.” 독립유공자 15명의 자랑스러운 이름과 활약상이 소개되었고 이날 국적증서를 받는 후손의 이름도 모두 호명되었다. 영상이 끝난 뒤, 신숙 선생의 손자 박한웅 님의 대표 선서를 시작으로 스물세 명의 후손은 한 명씩 국적증서를 받아 들었다. 저마다 가족과 함께 사진을 남기는 동안 객석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수가 이어졌다.

[소감 발표] 후손을 통해 다시 이어진 이름들

이날 소감 발표는 권상익 선생의 후손 권성자 님과 최현구 선생의 후손 김영 님이 맡았다. 권성자 님은 “선조께서는 일제 강점기 대중교 활동을 통해 조국의 독립과 인류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국적증서는 저에게 단순히 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문서가 아니라, 선조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숙연하고 소중한 약속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영 님의 소감은 3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저희 선조께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삶을 바쳤지만, 그 후손들은 오랜 세월 국경 너머에서 살아왔습니다.



[축하공연] 군악대의 선율,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소감 발표에 이어 국방부 군악대의 축하 공연이 무대를 채웠다. 뮤지컬 〈체스〉의 ‘Anthem’, 뮤지컬 〈영웅〉의 주제곡 ‘영웅’,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세 곡이 이어지는 동안 객석 곳곳에서는 따뜻한 미소와 벅찬 감동이 번져갔다. 공연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단상에 올라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마치며 행사는 막을 내렸다. 🇰🇷

[현장에서 만난 후손들의 한마디]



박한웅 | 신숙 선생 후손, 선서대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었지만 고향에서 행거야 할 일들이 많아 시간을 낼 수 없었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이 순간이 왔습니다. 저희 같은 후손들을 보살펴 주는 한국 정부에 정말 감사합니다.”



최현호 | 최병수 선생 후손
“이 증서를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거든요. 저와 제 누나, 그리고 조카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모두 고조할아버지의 노고 덕분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무사예프 안사르 | 김경천 선생 후손
“김경천 장군의 후손으로서 제 뿌리에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적을 취득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제 삶을 먼저 변화시키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상 속 역동성과 도파민 채우는 ‘디저트’

한국 사회를 읽는 달콤한 방식

수 주 판매 톱권 ‘디저트 반값기’

최근 한국 디저트 시장은 유행 주기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초단기 유행’을 겪고 있다. 2025년 겨울을 강타한 두바이 쫄떡 쿠키(두쫄쿠키)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쿠키에 접목해 전국적인 오픈런을 일으켰고, 2026년 봄부터는 찹쌀과 버터를 함께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떡한 상하이 버터떡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개인 카페에서 시작된 유행이 한 달도 안 돼 편의점 상품으로 등장하는 일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최근에는 보라색 열대작물 ‘우베’를 활용한 크림빵과 음료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희소성 사라지고 유행은 짧아진다

이런 초고속 유행 뒤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릴스·쇼츠처럼 1분 미만의 영상에서 쫄떡함이나 바삭한 소리 같은 식감을 시각·청각으로 자극하는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퍼진다. 명품 대신 수천 원 짜리 디저트로 만족감을 얻는 ‘스몰 럭셔리’ 소비 심리도 한몫한다. 여기에 개인 카페의 인기 메뉴를 한 달 안에 편의점과 프랜차이즈가 상품으로 쏟아내는 유통업계의 속도전이 더해지면서, 희소성은 빠르게 사라지고 유행의 반감기는 갈수록 짧아진다.

역동성과 동조 문화, 그리고 도파민 소비

이 현상은 먹거리 트렌드를 넘어 한국 사회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하나의 유행에 전국이 순식간에 몰렸다가 다음 자극으로 옮겨가는 역동성, “나만 안 먹어봤다”는 불안감이 오픈런 등으로 이어지는 동조 문화, 그리고 인증샷과 공유를 통해 트렌디한 집단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려는 심리 등이 숨어 있다. 매운 맛 열풍에 이어 극강의 단맛과 식감이 유행하는 것도 높은 경쟁 속에서 즉각적인 보상을 찾는 ‘미각적 도파민’ 추구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 디저트 유행 키워드



01

쫄떡 자극
비주얼·ASMR로
승부하는 1분 미만
콘텐츠



02

스몰 럭셔리
수천 원으로 누리는
트렌드 합류 느낌



03

초고속 유통
카페 인기 메뉴가 한 달 내
편의점 대량 출시



04

FOMO·디토 소비
“나만 안 먹었다”는
불안감이 만드는 오픈런

세계는 어떻게 즐길까



프랑스 크루키©baketotheroots

Case 01 | 프랑스 | 전통이라는 이름의 자부심

프랑스는 아예 새로운 간식을 만들기보다 정통 페이스트리를 베이스로 삼아 변주하는 쪽을 택한다. 크루아상 사이에 초콜릿칩 쿠키 도우를 넣어 구운 ‘크루키(Crookie)’는 부드러움과 바삭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파리 베이커리 거리에서 세계로 번졌고, 피자 모양의 대형 쿠키 위에 피스타치오와 초콜릿을 얹은 ‘쿠키 피자’도 유명 파티시에의 손끝에서 SNS 비주얼 쇼크를 일으키며 인기를 끌고 있다. 유행을 좇더라도 결국 뿌리는 전통 레시피, 이것이 프랑스식 미식 자존심이다.

Case 02 | 일본 | 식감을 파괴하는 물방의 미학

일본은 하나의 식감이나 형태를 끝까지 파고드는 ‘오타쿠적’ 심화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즐긴다. 수분 함량을 극대화해 입에 넣자마자 녹아내리는 ‘생도넛(나마도넛)’은 자극적인 단맛보다 향과 질감을 진지하게 음미하는 태도와 맞아떨어졌고, 두바이 초콜릿을 일본식 찹쌀떡에 접목한 디저트나 옛 다방 스타일 커스터드 푸딩을 재해석한 ‘네오 푸딩’은 레트로 감성으로 SNS 검색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외래의 유행도 결국 일본식으로 소화해 내는 방식이 눈에 띈다.



일본 나마도넛©YORKYS ENTERTAINMENT



미국 말차 케이크©keep-calm-and-eat-ice-cream

Case 03 | 미국 | 초록빛 화면과 웰빙의 명품

미국은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우는 강렬한 색감과 과한 단맛에 대한 피로감을 동시에 반영한다. 진한 초록빛의 말차 케이크·쿠키·크루아상은 틱톡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비주얼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얼그레이나 호지차의 쌉싸름한 풍미를 더한 구움과자류는 자극적인 단맛에서 벗어나 조금 더 성숙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찾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보여준다. 과잉 칼로리의 나라는 이미지를 벗고 ‘내 취향’을 제안하려는 개인주의가 읽힌다.

Case 04 | 대만 | 야시장에서 건강까지, 실용주의

고온다습한 기후 속에 길거리 디저트 문화가 뿌리 깊은 대만은 유행을 좇으면서도 건강까지 챙기는 영리함을 보인다. 설탕을 대폭 줄이고 섬유질·고단백 재료를 더한 전통 디저트 ‘도우화’는 “맛있지만 몸에 부담스럽다”는 인식을 깨는 ‘헬시 스위트’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발효·숙성 기술을 접목한 퓨전 페이스트리는 로컬 식재료의 깊은 풍미를 앞세워 MZ세대에게 인기다. 참고로 한국에서 유행했던 버블티, 대만 카스텔라, 탕후루 등 많은 디저트의 원류도 대만의 야시장이다.



대만 도우화©ftvnews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달콤한 길, 크루키, 생도넛, 말차, 도우화 등 각 나라가 단맛을 즐기는 방식을 함께 엿보이요.

ABROAD

KOREA

디저트 하나에도 그 사회가 살아가는 속도가 담겨 있어요.
한 입의 유행에 담긴 오해의 한국을 만나보요.

KIS NEWS

2026.
AUTUMN
Vol. 77

01 | ‘만성적 구인난’ 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 전문 자격 갖춘 외국인 도축원, 국내 현장에 첫 배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도축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을 신설하고 올해 1월부터 연 150명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7월 14일 15명, 8월 5일 19명의 도축 기술자까지 총 34명이 해당 비자로 처음 입국하여 현장에 투입됐다.



02 | 네이처 포토닉스 표지 올린 물리학자, ‘한국인’ 됐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로 세계적 연구자 16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23일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네이처 포토닉스 표지를 장식한 이란 출신 물리학자, 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 오희 교수 등 우수인재 16명에게 국적을 부여했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국익에 기여할 인재에게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03 |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 마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로 온라인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문제로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확인 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04 | 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 국내 정착의 길 열려 추락 전투기 조종사 구조한 공로 인정해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2년 서해 해상에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8월 21일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근무하던 중 조업 현장에서 조종사를 발견해 선장과 함께 구조한 바 있다.



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05 | 광역형 비자 제도,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 지역 맞춤형 인재 유치·정착 연계로 사업 방향 전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종합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해 유학·취업·가족동반·지역정착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7~2028년 정식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06 | “본국 가족 송금·우편 부담 덜어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 및 가족 대상 우편·금융 우대 혜택 제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우정사업본부는 8월 28일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자격자와 가족은 국제특급우편 요금 10% 할인, 우체국 예금 우대금리, 해외송금 환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07 | 이주배경 청소년 25명, 후배 청소년의 ‘정착·진학’ 돕는다 모범 정착 사례로 학교생활·진로 설계 지원 나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12개국 25명의 청소년을 9월 1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08 |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쉼터 소재지에서도 체류허가 신청 가능하도록 관할 확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이 신변 노출 우려 없이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8월 24일부터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뿐 아니라 쉼터 등 피해외국인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자격 부여·변경 및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나도 한 번 받아볼까?

2024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가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제도로 자리 잡았다. 시범 운영 2년 6개월간 768명이 이 비자를 발급받았고, 2026년 8월 현재 442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을 Q&A로 살펴보자.



Q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뭔가요?

A 노트북 하나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디지털노마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를 ‘워케이션’이라고 해요. 해외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해외 기업에 소속된 채 한국에 머물며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F-1-D)를 뜻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하고,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이 대상이에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가족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Q ‘연봉 1억이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기존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나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25년 기준 약 5,241만원)의 2배를 소득 요건으로 요구했어요. 이제는 나이가 젊거나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요건이 GNI의 1~2배 범위로 낮아집니다.

Q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나요?

A 기존에는 1년씩 연장해 최대 2년까지였는데 이번에 최대 3년까지 늘었어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과 함께 소득 증빙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보장액 1억 원 이상)가 필요해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머물 계획이라면 임대차계약서나 워케이션 숙소 예약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Q 이미 관광비자로 한국에 있는데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지역·연령별 소득 요건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만 18~34세 : GNI 1.5배 (약 7,862만 원)
- 만 35세 이상 : GNI 2배 (약 10,483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 만 18~34세 : GNI 1배 (약 5,241만 원)
- 만 35세 이상 : GNI 1.5배 (약 7,862만 원)

※ 가족 동반 시 : 수도권은 GNI 2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은 GNI 1.5배 적용

Digital Nomad(Workation) Visa: Should I Apply?

Piloted since January 2024, the Digital Nomad(Workation) Visa was formally incorporated into Korea's visa system on June 30, 2026. During the 2 years and 6 months of the pilot program, 768 people were granted this visa, and as of August 2026, 442 people are currently staying in Korea on this visa. Let's take a look at what has changed this year in the Q&A below.



Q What is the Digital Nomad Visa?

A A “digital nomad” is someone who works from anywhere with just a laptop, and “workation” refers to a work style that combines work and vacation. The Digital Nomad Visa (F-1-D) allows foreign nationals who own an overseas business or are employed by an overseas company to stay in Korea and work remotely.

Q Who is eligible to apply?

A Foreign nationals who own a business outside Korea or are employed by a foreign company, are capable of working remotely, and are at least 18 years old with at least one year of work experience in the same industry are eligible. Spouses and minor children may also accompany them as family members.

Q Is it true that an annual income of at least KRW 100 million is required?

A The income requirement has been eased. Previously, the income requirement was set at twice Korea's per capita gross national income (GNI, as of 2025, KRW 52,410,000), regardless of age or place of residence. Now, the requirement has been lowered to a range of one to two times per capita GNI for younger applicants or those residing in non-capital areas or in the Population Decline Areas.

Q How long can I stay?

A Previously, visa holders could extend their stay in one-year increments for up to two years, but the maximum period of stay has now been increased to three years.

Q Where and how can I apply?

A You can apply for the visa a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abroad. You'll need to submit a completed visa application form, your passport, and a photo, along with proof of income, a Criminal Records Certificate, and proof of pers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at least KRW 100 million. If you plan to stay in non-capital areas or Population Decline Areas, you'll also need to submit a lease agreement or an accommodation booking confirmation for the Workation.

Q Can I switch to this visa while in Korea on a tourist visa?

A Yes, you can. If you hold a short-term tourist visa (B-1, B-2, C-3) and meet the requirements, you can change your visa to a Digital Nomad visa.

Income Requirements by Region and Age

Seoul Metropolitan Area (excluding Population Decline Areas)

- Ages 18~34: GNI×1.5 (approximately 78.62 million won)
- Ages 35 and older: GNI×2 (approximately 104.83 million won)

Non-Capital Areas and Population-Declining Areas(Areas of Concern)

- Ages 18~34: GNI×1 (approximately 52.41 million won)
- Ages 35 and older: GNI×1.5 (approximately 78.62 million won)

※ When accompanied by family: GNI×2 appl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GNI×1.5 applies in Non-Capital Areas and Population-Declining Areas(Areas of Concern)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핫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최근 국제전화를 통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1 ☎1345 + '1번' 누르고 신고 (또는 'Migrant Rights 페이스북' DM)
 - 2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전담반과 연계 →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합동 현장조사 실시
-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근로자 근무처 변경 지원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외국인도 발급 가능! 인감 도장 없이도 OK!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시나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만 있으면, 누구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공식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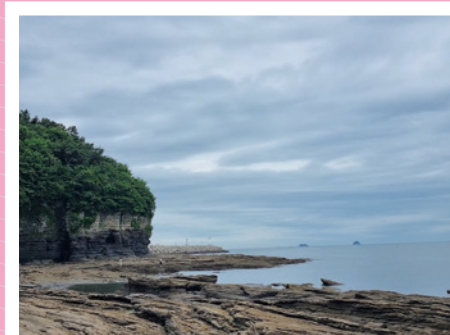
법무부는 7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외국인 노동자,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적 통합 보호체계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습니다.

KIS EVENT

지난호
'한국에서 보낸 여름'
사진 응모 당첨
축하드립니다



울산 슬도등대
장○영님(ZHANGWENYING)



부안 채석강
김○현님(Jin Xiāngxiàn)

EVENT 1

사진 공모

독자 여러분의 '한국에서 보낸 가을'을 소개해 주세요

- **공모 주제** 한국에서 보낸 가을
※ 타인 사진 제출에 따른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인물 사진은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사전동의를 받아 제출해 주세요.
- **참여 기간**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 **제출 방법** 사진 파일과 추가정보(이름, 연락처, 작품 제목과 설명, 촬영 날짜)를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moonk1201@daum.net
- **당첨자 발표** 2026년 11월 중 개별 통보
- **이벤트 혜택** <공존> 겨울호 게재 및 소정의 상품 지급

EVENT 2

독자 설문조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존> 2026년 가을호를 보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정성스럽게 후기를 남겨주신 독자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기간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1 설문조사 링크 접속하기



2 <공존> 가을호 읽고 난 후기 작성하기



3 설문조사 제출!



제13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행사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법무부가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입니다.



행사장 별 일정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일시·장소) '26. 10. 18.(일) 09:00~13:00,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
- (대상) 일반시민, 재한외국인, 동포, 유관단체 등
- (주최) 법무부(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일시·장소) '26. 11. 01.(일) 09:00~12:30,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 (대상) 일반시민, 재한외국인, 동포, 유관단체 등
- (주최) 법무부(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요 일정(공통)

행사	세부 내용
1부	개회, 환영사 및 축사
2부	걷기축제
3부	문화공연 및 경품추첨, 폐회
상시프로그램	정부합동 고충상담, 건강캠프, 문화체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